

동해바다에 떠 있는 법당



가람의 장면들

낙산사 흥련암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건축학)



바위 절벽에 법당을 짓는 것은 극진한 신앙의 표현이다. 흥련암은 의상대사의 구도심을 기리고 동해8부신중을 배례하기 위해 동해바다가 들어다 보이도록 절벽 낭간에 지었다.

법당 안 마루바닥에 반쯤짜리 작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있다. 그 작은 구멍들에 눈을 바싹대고 들여다보면, 저 아래 깊은 곳에 넘실대는 파도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된다. 흥련암은 그렇게 바다 위에 떠있다. 정확히 말한다면, 가파른 절벽 사이의 바위 틈에, 마치 다리를 놓듯이 마루를 걸쳐고 집을 지었다. 왜 이처럼 험난한 곳에 어렵게 법당을 지었을까?

흥련암은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경내에 있는 작은 암자다. 낙산사는 관광경관의 하나로, 정선과 김홍도가 그림을 남겼을 정도의 명소였지만, 6·25전쟁 중에 크게 망가져 현재의 건물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 재건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위치한 뛰어난 풍치와 흥련암 의상대를 포함한 넓은 경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간주 의상대사의 생사를 초월한 구도의 전설들로 가득찬 곳이다.

의상대사가 활동하던 통일기 신라에는 전국

의상대사 14일 기도후 관음보살 친견한 자리 : 구도심 기리려 벼랑에

규모 작지만 극진한 신앙 결정체

바다 위에 솟아있는 구릉의 바위에 앉아 팔팔한 기도를 하다 다시 7일간,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나타나지 않았다. 용담이 없는데 대사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함을 탓하며 바다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솟아나 대사를 구해준 것은 물론, 그 속에 드디어 관세음보살이 현신해 천경의 원을 이루게된다.

그 천경의 장소에 지은 법당이 흥련암이고, 흥련암 아래의 암석굴이 바로 관음굴이다. 이처럼 바다 위 절벽에 자리를 잡은 까닭은 수정 열주를 바친 바다 속의 8부신중들이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배례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숨까지 바쳐려했던 의상의 높은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가파른 벼랑을 올라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대단한 난공사였다. 일부러 약조건을 감수하여 법당을 짓는 까닭은 그것이 최대의 공덕이기 때문이다.

비단 흥련암 뿐 아니다. 공산의 보리암도 작아지곤 듯 높은 절벽 위 좁은 터에 지어졌고, 관악산 연주암도 마찬가지다. 건축재료들을 나르기도 힘들고 공사도 어려운 곳이다. 강화 보문사는 아예 바위를 파고 들어가 관음보살을 모셨다.

3대 관음 성지가 모두 험난지경과 난공사를

택했던 것이다. 의상의 고승사 가학부는 넓은 계곡을 가로 질러 건물을 올려 놓았다. 금강산 보덕굴은 아예 천길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구조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극진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난공사는 존재할 것이 없었다.

흥련암 바위의 작은 구멍을 통해 동해의 파도를 보자. 푸르름이 먼저 앞선다. 대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미약한 인간. 그러나 의상을 비롯한 이 법당을 만든 스님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그들의 치열한 구도자세에 경의를 포함 수밖에 없다. 선재동자가 53 선지식들을 찾아 다니며 진리를 구했듯이 진리에 이르는 험난한 길을 헤쳐간 선인들의 역정이며.

불교건축은 인력과 기술,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은 그 자체가 신심의 상징이어야 한다. 흥련암은 작은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 건물이 담고있는 신심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단지 시주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크고 넓게만 확장하고 있는 현대의 불사는 부끄럽기만 하다. 부처님은 법당의 크기를 어찌여 여기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거기에 담긴 신심과 치열한 구도의 정신을 볼 뿐이다. 바다 위 절벽에 건 작은 흥련암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다.

토를 보살들의 거주처로 인식하려는 국토재구성 운동이 한창이었다. 대표적인 곳이 오대산으로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으로 발달여졌다. 문수보살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보살인 관세음보살은 동해 남해 서해 각 세곳에서 친견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원래 관세음보살은 동쪽의 보타리가산을 주처로 가지고 있다고 화엄경에 나온다. 낙산사의 팔이름도 결국 보타리가산에서 유래한 것이다. 관세음보살 제의 성지가 동해의 낙산사라면, 제2는 남해의 금산 보리암이고, 제3은 서해 강화 보문사다.

의상이 암나라에서 돌아온 후,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동해의 관음굴을 찾아가 긴절한 신앙고백과 원을 담은 「백회도량발원문」을 염하면서 참배하고 있었다. 재계 7일만에 8부신중이 나타나 관음굴 속으로 스님을 인도했고 수정열주 하나를 용담의 징표로 쥐어주었다. 그러나 대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굴 앞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관석에 음각...조형미 떨어져

철원 삼신사지 철불입상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민간인 통제구역에 있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운정리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삼신산 기슭의 평탄한 가람자리에 서있다.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천경하기조차 곤란했으나 최근 민통선이 완화되어 군부대의 허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높이가 2m55cm, 넓이가 1m16cm, 두께가 26cm로 자연관석에 음각으로 조각돼 있다. 관석에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특별한 예술감각이나 조형미가 떨어지는데 이로부터 신



철원 삼신산 기슭에 있는 삼신사지 석불입상.

코·입·얼굴등 훼손 심해 '눈물 흘리는 불상' 구전

심독한 불자의 원력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목에는 불두의 크기보다 크게 산이 그려져 있으며 눈은 옆으로 길게 조각하였다. 또 길게 늘어진 머리와 귀는 선으로 그어 구분하였으며, 코와 입, 얼굴은 인위적으로 손상됐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양어깨에서 내려온 팔은 균형을 잃어진다. 수인은 두손을 모아 합장한 듯하나 이도 분명치 않다.

석불문화연구회 고재두부장(담사관리부)은 "철원 삼신사지는 고려시대에 창건됐다고 전할 뿐 다른 자료가 없다"며 "불상의 조각형식 및 표현기호로 보아 불상제작의 쇠퇴기인 고려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얼굴과 몸전체의 총탄맞은 자국을 시멘트로 매워놓았는데 6·25당시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돌부처 제보: (02) 722-4162~3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한때 군부대에서 부대내 연방장으로 옮겨 놓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후 군부대에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보초근무를 서던 초병이 연방장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불상이 눈물을 흘리는 아픈바자 알아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부러부러 원래의 위치로 다시 모셨다.

이과정에서 석불입상은 원래 생장리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군부대에서 옮기면서 외수리쪽을 바라보게 됐다. 최근에는 생장리 마을주민들과 청년회원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원래방향으로 옮기기 위해 대규모 재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정리=김원기 기자(wkim@budthapia.com)

"돌부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자신"

석불문화연구회 발표내용

이근후 박사 (이화대 교수)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처님 생시에 사진이나 비디오가 있었다면 그런 궁금증은 곧바로 풀릴 일이다. 그러나 실제 사진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상적 존귀함이 없었을지 모른다.

부처님의 모습은 돌부처를 다룬 석수공예의 마음의 투사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일 거라는 지점이 생겨났으니 그것은 32상 80중후이다.

32상은 중앙할경에도 실려있고 방광대장경에도 실려있다. 기술되고 번역된 연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담고 있는 내용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실적인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32상 80중후를 깊이 이해하려면 현문헌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겠고 상징적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지존한 모습을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그리고

신은 중생들의 영원을 헤아리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돌부처의 모습은 부처님 자신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우리들이 염원하는 부처님의 모습일 것이다.

불사의 전당

▲삼세불의 18-관상

부처님초상 원용 만능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비구 노사나 상목展

귀의삼보하옵고 상목스님은 입선전 전공 수확한 서양화를 선의 뿌리에 접목해서 스님만의 독특한 창작세계를 구현하여 화폭에 담은 작품을 "비구 노사나 상목전"으로 전시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회장 조용국·신도회일동 합장

- 서울 전시
 - 일시: 1999년 5월 5일~5월 11일
 - 장소: 백상기념관
- 부산 전시
 - 일시: 1999년 5월 14일~5월 20일
 - 장소: 롯데백화점 7층 화랑
- 문의 : ☎(0595)883-3751, 011-573-3751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원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디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연꽃원 제조 특허 연등

천덕의 연등들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1차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울) 용주사(화성군) 금강사(김제) 선문사(광주) 동화사(광주) 깃바위(광주) 의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문주사(화성군) 그외다수

■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원하시는 사항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송곡동 180-1

천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